일반논문

인문논총 제75권 제4호 (2018.11.30), pp. 129~162
[DOI] https://doi.org/10.17326/jhsnu.75.4.201811.129

조선박람회 전시관 양식에 보이는 제국과 식민지, 수도와 지방*

염 복 규**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29년 개최된 조선박람회의 전시관 양식을 중심으로 박람회의 코드를 읽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제국과 식민지', '수도와 지방'의 키워드로 읽었다.

조선박람회는 식민통치 중기의 시점에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으로 조선색이 두드러진 박람회였다. 물론 여기에서 조선색은 식민통치의 토착화를 뜻하는 것이다.

조선박람회의 조선색은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직영관 양식에서 많이 보인다. 그것은 전시관의 건축 양식이 조선식이라는 점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전시물의 설명 등이 조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표기법이라는 점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13169).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주제어: 식민통치 중기, 식민지 박람회, 조선박람회, 조선색, 지역색
The Middle of Colonial Period, Colonial Exposition, Joseon Exposition, Joseon Color, Local Color

다음으로 일본과 조선의 각 지역, 단체에서 설치한 특설관의 양식은 보편적인 모던풍, 지역색이 두드러진 양식, 무국적적 이국풍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물산이 풍부하고 지역세가 강한 경우 모던풍을 채택했다. 반면에 지역세가 약한 경우 로컬 컬러가 짙은 전시관 양식을 채택했다. 이도 저도 아닌 이국풍의 전시관도 적지 않았다.

이런 조선박람회의 다면적 코드는 제국 일본 권역 속의 식민지 조선의 다면적 지위, 제국 도시의 위계 속의 식민지 수도 경성의 유동적 지위를 반영한다.

1. 머리말

박람회란 무엇인가? 일반적 정의에 의하면 박람회는 "생산물의 개량・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농업, 상업, 공업 따위에 관한 온갖 물품을 모아 벌여 놓고 판매, 선전, 우열 심사를 하는 전람회"이다.[1] 산업의 발달, 시장의 확대와 관계된 행사로서 대량의 전시물을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과시하는 이벤트임을 알 수 있다. 정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에서 19세기 중반 처음 시작되었다. 1851년 런던만국박람회가 그것이다. 더불어 서구 제국에서 박람회라는 이벤트가 개시된 시점은 전 세계적으로 근대 제국-식민지 체제가 구축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그리하여 박람회는 태생부터 제국주의와도 결합해 있었다. 이렇듯 박람회는 "산업의 디스플레이인 동시에 제국의 디스플레이"였던 것이다.[2] '제국의 디스플레이'로서 박람회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2) 이것은 요시미 순야의 표현이다. 이하 제국주의 시기 박람회, 특히 제국 일본 권역의 박람회 일반에 대해서는 요시미 순야(2004), 이태문 역, 『박람회』, 서울: 논형; 山路勝彦(2008), 『近代日本と植民地博覽會』, 東京: 風響社; 하세봉(2001), 「20세기 전환기, 박람회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인식과 시선」,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6, 동아시아문화포럼 참고.

의 시발점은 보통 1867년 파리만국박람회로 본다. 파리만국박람회는 이후 제국주의 국가가 개최한 박람회의 한 전범이 되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직후 서구를 모방한 최초의 박람회로서 1877년 제1회 내국권업박람회를 개최했다.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면서는 식민주의 디스플레이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1903년 제5회 내국권업박람회에는 식민지 타이완관이 처음 등장했으며, 한국병합 후 1913년 메이지기념척식박람회에는 조선관도 등장했다. 1914년 도쿄다이쇼박람회에 이르면 타이완 외에 가라후토(樺太; 사할린)관, 조선관, 척식(拓殖)관, 만주관 등 여러 개의 (준)식민지관을 설치했다.

제국의 박람회에 설치된 식민지관의 역할은 어쩌면 단순하다. 제국=문명=선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식민지=야만=후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시관의 구성, 전시물의 배치는 대체로 이런 구도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제국 일본 권역의 박람회가 모두 본토에서 개최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타이완이나 조선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했다. 그렇다면 식민지 박람회의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식민지권력이 단지 제국의 손발이 아니라 일면 본토 정부의 하수인이면서도 일면 본토와 길항하기도 하는 통치 체제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식민지 박람회의 디스플레이에서도 무조건 본토 박람회의 재판(再版)이 아닌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하는게 아닐까?

이 글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개최한 박람회 중 1929년 조선박람회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박람회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식민지시기 3대 박람회(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1929년 조선박람회, 1940년 조선대박람회) 중 하나이며,[3] 식민통치 중기의 박람회로서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 그리고 박람회 개최장소인 경성과 조선의 지방도시, 나아가 본토 각 지역과의 관계의 다면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3) 이 중 공진회와 조선박람회는 직접 총독부가 주관했으며, 조선대박람회는 형식상으로는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가 주관했다.

박람회이다.

조선박람회에 대해서는 식민지 조선의 3대 박람회를 비교・조망한 연구[4]를 필두로 이 역시 일본의 선진성과 조선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연구가 이루어졌다.[5] 이런 인식은 일견 상식적이며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1929년은 일본의 입장에서 식민통치 '20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총독부가 조선의 후진성을 표나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식민지권력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6]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존과 다른 각도에서 조선박람회를 분석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1929년 조선박람회와 1935년 타이완박람회를 비교하여 양자의 상징물 양식이 각각 조선의 전통적 모티브와 서구적・근대적 모티브로 대조된다는 지적 이래 조선박람회 전시관 일부의 건축양식이 이른바 '조선식'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도 제출되었다.[7]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박람회에 보이는 '조선 로컬 컬러'를 이 시기 식민지

4) 신주백(2004),「박람회 — 과시・선전・계몽・소비의 체험공간」,『역사비평』67, 역사비평사.

5) 전민정(2003),「일제시기 조선박람회(1929년)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김영희(2007),「조선박람회와 식민지 근대」,『동방학지』140, 연세대 국학연구원; 남기웅(2008),「1929년 조선박람회와 '식민지근대성'」,『한국학논집』43,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전윤환(2009),「1929년 조선박람회를 통한 지방민의 근대 공간 체험」,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안현정(2010),「시선의 근대적 재편, 일제치하의 전시공간」,『한국문화연구』1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이 밖에도 주된 테마는 아니더라도 조선박람회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연구는 다수인데, 대부분 이런 구도를 전제하고 있다. 한편 山路勝彦(2008)도 당시 제국 일본 권역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여러 측면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이 점이 1915년 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의 성격을 크게 구분하는 잣대이다. 병합 5년이라면 식민지의 후진성을 강조하는걸 이해할 수 있지만, 통치 20년이라면 그와 다를 것이라고 보는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7) 하세봉(2004),「식민지권력의 두 가지 얼굴 — 조선박람회(1929년)와 대만박람회(1935년)의 비교」,『역사와 경계』51, 부산경남사학회; 강상훈(2006),「일제강점기 박람회 건축을 통해 본 건축양식의 상징성」,『건축역사연구』47, 한국건축역사학회.

권력 일각의 '토착화' 경향과 연관시킨 분석도 이루어졌다.[8] 최근에는 조선박람회의 구성이 재조선 일본인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분석, '어린이 나라(子供の國)'를 비롯한 박람회 유희 공간에서 식민지시기 근대 가족의 탄생을 살핀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9]

이상과 같이 조선박람회는 여러 관점의 연구에 의해 이미 전모의 상당한 부분이 밝혀진 셈이다. 이 글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다소 미진했던 박람회장의 경관, 구체적으로는 박람회 전시관의 양식에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한다. 실제 전시물의 내용이 어떤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람객의 입장에서 전시관의 외관은 전시의 주체가 강조하려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첫 인상을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모든 박람회는 일정하게 만들어진 동선을 가진다. 조선박람회도 박람회장인 경복궁 동측 이축된 광화문(박람회장 정문)에서 출발하여 한바퀴를 돌아 '어린이 나라'에서 끝나는 동선을 가진다. 그리고 이 동선상에 배치된 전시관들은 모두 나름의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컨셉은 어느 한 쪽으로 규정하기에는 복잡한,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면모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조선박람회라는 이벤트의 공간에는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 다양한 욕망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식민지권력의 공식적인 입장이 관철된 제반 계획과 총독부 직영관, 그리고 여러 지역, 단체, 회사에서 각기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 세운 특설관의 두 계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8) 김제정(2013),「식민지기 박람회 연구 시각과 지역성」,『도시연구』9, 도시사학회; 송인호・김제정・최아신(2014),『일제강점기 박람회의 개최와 경복궁의 위상변동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서울학연구』55,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9) 김나라(2016),「1929년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장나영(2018),「식민지 조선의 가족 나들이 연구 — 1929년 조선박람회의 '어린이 나라'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 조선박람회의 공식적 컨셉, ‘조선색’의 실제와 의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식민지화 전후부터 8.15 광복에 이르는 기간 중 식민지 조선에서 수십차례 개최된 각종 박람회, 공진회, 품평회 등 중 총독부 차원에서 개최한 공식 박람회는 각각 ‘시정 5년’, ‘시정 20년’, ‘시정 30년’을 기념한 세 차례이다.[10] 총독부 신청사 ‘예정지’로서 경복궁에서 개최된 공진회는 병합 초기 일본의 선진성과 조선의 후진성을 대조하면서 5년간 식민통치의 ‘치적’을 최대한 알리고자 한 박람회였다. 전형적인 식민지 박람회였던 셈이다.[11]

그런가 하면 1940년 조선대박람회는 청량리-마장정(馬場町) 일대에서 치루어졌다. 이 곳은 1930년대 이래 경성의 공간적 확장의 핵심인 동북지역으로서 조선대박람회는 개최 장소에서부터 외곽으로 확장되어가는 ‘대경성(大京城)’의 면모가 담긴 이벤트였던 셈이다. 또 개최 시점을 반영하여 전시 동원의 분위기가 두드러진 박람회이기도 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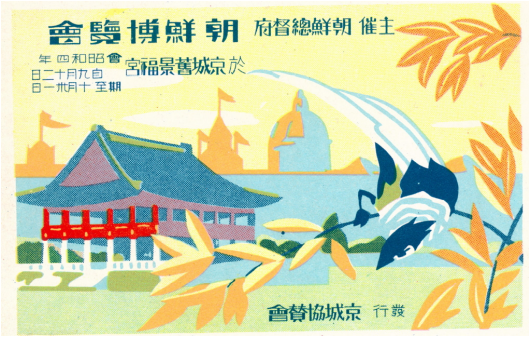
이상에 비해 조선박람회는 선행 연구가 지적했듯이 ‘조선색’을 표나게 내세운 박람회라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 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선행 연구는 1935년 타이완박람회와 비교하여 조선박람회는 상징물로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무궁화, 소, 인삼 등 조선 전통의 요소를 강조했으며 전시물에서도 그동안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으

10) 조선에서 일본 측이 주관한 박람회의 효시는 대개 1907년 통감부가 개최한 경성박람회를 든다. 경성박람회는 헤이그특사 사건으로 고종이 퇴위당하는 어수선한 정국에서 당시 일본 거류민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구리개(병합 후 황금정, 현재 을지로) 일대에서 열렸다.

11) 공진회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김태웅(2002), 「1915년 경성부 물산공진회와 일제의 정치선전」, 『서울학연구』 18,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주윤정(2003), 「조선물산공진회(1915)에 대한 연구」, 정문연 석사학위논문.

12) 조선대박람회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토드A. 헨리(2008), 「제국을 기념하고, 전쟁을 독려하기」, 『아세아연구』 51-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Todd A. Henry (2014), Assimilating Seou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로 치부하던 물품(주로 조선 고유의 생활용품 등)이 전통을 보여주는 요소로, 다시 말해서 긍정적 이미지로 등장한 점 등을 들었다.[13]



[그림 1] 1929년 조선박람회와 1935년 타이완박람회 포스터.

* 출전: 좌: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1929),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報告書』, 우: 山路勝彦(2008), 권두도판.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박람회 포스터가 경회루를 전면에 내세우고 총독부 청사를 후경에 배치한 것과 타이완박람회 포스터에서 총독부 청사가 우뚝한데 반해 타이완 고유의 풍광이 그에 눌린듯이 보이는 배치는 양자의 대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선박람회의 조선색은 공식 박람회가에서도 잘 드러난다.[14]

조선박람회가

1. 무궁화 향내 덥힌 우리 보배로 / 백화가 얽으러진 문화의 동산 / 대조선 박람회가 광명에 찼네.

13) 하세봉(2004) 참고.

14)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1929),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報告書』, p. 3.

(후렴) 동무야 가자 가자 박람회 가자 / 우리의 자랑터로 발맞춰 가자.

단풍든 경복궁은 비단이 곱고 / 보배가 산 같은데 사람이 바다 / 대조선 박람회가 기쁨에 뛰네.

2. 조선은 삼천리 아름다운 땅 / 두만강 풀피리 남쪽에 처녀 / 황해와 동해가 번갈아 웃네.

(후렴) 가자 가자 서울 장안 떠들썩 한다 / 박람회는 우리 것이 모인 집이다.

조선은 삼천리 살기좋은 땅 / 금나고 은나고 소가 음-메 / 백곡과 만물이 풍성하고나.

무궁화, 경복궁, 삼천리, 두만강, 서울 장안 등 한눈에도 조선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가득차 있다. 맥락을 모른다면 식민지시기의 노래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가사는 경성협찬회의 시민 현상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당시 숙명여학교에 재직 중이던 음악가 김영환이 작곡했다.[15] 노래를 만드는 과정도 철저히 '조선적'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람회장의 경관을 살펴보자. 이를 인도할 안내자는 기념사진첩이다. 10월말 조선박람회가 종료한 후 두 종류의 기념사진첩이 간행되었다.[16] 폐회 직후 극동시보사(極東時報社)와 대륙통신사(大陸通信社)가 간행한 『조선박람회기념사진첩』(1929.11.11.)과 이듬해 봄 총독부가 간행한 같은 제목의 사진첩(1930.3.30.)이 그것이다.[17] 전자는

15) 『東亞日報』, 1929.7.26.; 金永煥(1893-1978)은 평양 출신으로 우에노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숙명여학교, 연희전문학교 등에 재직했다. 한국 최초의 정규 음악학교 출신 피아노 연주자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6) 이미 언급했듯이 박람회는 시각적 이벤트이다. 따라서 이미지로 재현한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읽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조선박람회는 다른 박람회에 비해 다량의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전모를 담은 기념사진첩만 두 종류가 간행되었으며 그 밖에 사진엽서, 繪圖 등도 여러 종류가 전한다. 이렇게 다량의 이미지가 생산된 것도 식민통치 중기 치뤄진 조선박람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7) 極東時報社・大陸通信社(1929), 『朝鮮博覽會紀念寫眞帖』; 朝鮮總督府(1930),

재조선 일본인 언론사가 간행한 것이며, 후자는 총독부가 공식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사진의 배치나 설명은 거의 동일하다. 조선박람회의 전시 동선을 따라 각 전시관의 외관과 내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더불어 박람회 개최 장소인 경성의 경관을 부분적으로 소개했다. 이 글에서는 총독부 간행 사진첩을 기준으로 박람회장의 풍경을 따라가겠다.[18] 사진첩은 박람회 개최 장소인 경성의 전경을 보여주며 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경성부는 예부터 한양 또는 한성이라 부르며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이씨 조선의 시조 이성계가 수도로 삼아 왕궁의 터를 이 곳에 정한 이후로 반도의 정치, 교육, 경제의 중심을 이루었다. 고유문화와 근대적인 문명을 서로 융합하여 바야흐로 반도의 수도로서 대경성의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 (『사진첩』, p. 16)

경성의 도시 정체성의 시작은 조선왕조의 수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미 조선박람회를 단순한 식민지 박람회의 코드로 읽어서는 안된다는 암시를 얻을 수 있다. 조선박람회는 '조선의 박람회'였

『朝鮮博覽會紀念寫眞帖』; 전자를 간행한 극동시보사와 대륙통신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다. 먼저 대륙통신사는 1890년경 도한하여 매일신보・경성일보 기자 등을 지낸 마츠오 시게요시(松尾茂吉)가 1920년경 설립했다. 1929년 현재 경영자는 '長風山人'으로 되어있다. 장풍산인이란 1893년 도한하여 1945년까지 줄곧 조선에서 활동한 저명한 '조선통' 지식인 기구치 겐조(菊池謙讓, 1870-1953)이다. 기구치는 호를 長風이라고 했으며 장풍산인은 그의 필명 중 하나이다. 또 대륙통신사의 주요 간부 중 한 사람으로 이노우에 오사무(井上收)라는 인물도 있는데, 역시 저명한 재조선 일본인 언론인 중 한명이다(국편DB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하지연(2008), 「韓末・日帝강점기 菊池謙讓의 문화적 식민활동과 한국관」, 『동북아역사논총』 21, 동북아역사재단). 극동시보사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대륙통신사를 모회사로 설립되었다.

18) 이 사진첩은 최근 건국대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역(2018), 『1929년, 조선을 박람하다 1, 조선박람회기념사진첩』, 서울: 소명출판으로 번역, 영인되었다. 이하 영인본에 기준하여 '『사진첩』, 쪽수'로 표기한다. 출판에 앞서 사료 열람을 허락해주신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측에 깊이 감사드린다.

던 것이다. 이어서 총독부 청사, 박람회 임석 일본 황족 간닌노미야(閑院宮), 총독, 정무총감의 초상, 개회식과 폐회식 장면을 거쳐 경복궁의 정전 근정전(勤政殿)과 경성의 현관 남대문이 등장한다.

> 근정전은 구(舊)경복궁의 정전이며 대례를 행하는 곳이다. 근정전의 앞마당은 궁정의 공적인 예식이 열릴 때 문무관이 모여 임금을 알현하는 곳이기도 하다. 경복궁은 500여년 전 이조 왕조의 태조가 창건에 관계했다. 200유(有)여년 전 난민에 의해 회진(灰塵)으로 돌아가게 되어 지금부터 60년 전 섭정 대원군이 일세의 민력을 들여 740여만량을 투자하여 재건한 왕궁이다. 지금은 폐궁이 되었을지라도 이조 말기의 대표적인 건물이다. (『사진첩』,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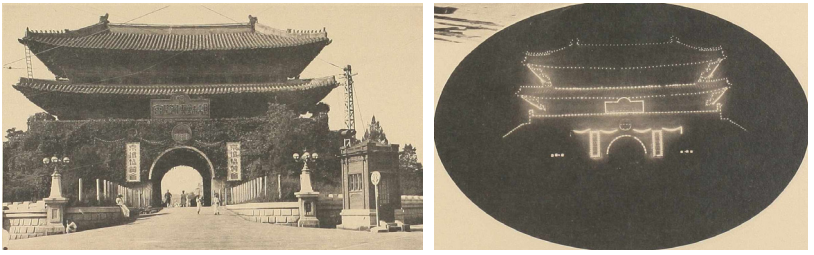
> 남대문은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에 건축되었고 숭례문이라 부른다. 경성 사대문 중 가장 큰 문이며 이조시대에는 높이 6m 남짓되는 성벽으로 연결되어 경성을 호위하는 일대 성곽의 한 대문이었다. (『사진첩』, p. 30)

근정전과 남대문, 이 유서깊은 고건축에 대한 설명에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조선의) 수도로서 경성의 위상을 분명히 드러낸 점이다. 위 설명에서 근정전이든 남대문이든 그것은 '수도 경성'의 상징이다.[19] 반면 둘 다 지나간 과거의 유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근정전은 (현재가 아닌) "구경복궁의 정전"이며 남대문은 "이조시대에는" "경성을 호위하는 일대 성곽의 한 대문이었다." 현재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림 2]의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의 현판을 붙히고 전기를 밝힌 남대문의 야경은 그것이 이제 "일대 성곽의 한 대문"이 아니라 조선박람회를 알리는 선전물일 뿐임을 웅변한다. 조선어 언론의 "(박람회 개최 장

19) 따라서 박람회장을 경복궁으로 한 것을 "식민자의 우월감"만으로 보거나 조선박람회의 조선풍을 단지 일본인 관람객의 이국 취미에 부응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분명 일면적이다(山路勝彦(2008), pp. 124-126).

소가) 어경성구경복궁(於京城舊景福宮)이라 하얏스니 신경복궁은 재하처(在何處)뇨?"라는 냉소적인 질문도 이런 측면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20]



[그림 2] 조선박람회 기간 중의 남대문.
* 출전: 『사진첩』, p. 31.

이제 박람회장으로 들어가보자. 정문과 중문을 통과하면 전시관이 나온다. 조선박람회의 전시 동선은 먼저 등장하는 총독부 직영관을 지나 경회지(慶會池)를 끼고 돌아 본토 특설관 및 조선 각 도 특설관을 거쳐 만국가(萬國街), 연예관 등 유흥 시설을 지나 어린이 나라에 이르는 구성이다.[21]

[그림 3] 산업남관과 산업북관의 외관.
* 출전: 『사진첩』, p. 37, 47.

20) 『東亞日報』, 1928.12.16.; [그림 1] 조선박람회 포스터에서의 표기도 그러하다.
21) 朝鮮博覽會 事務局(1929), 『朝鮮博覽會大要』, p. 12; 말미 [부도 1] 조선박람회장 배치도 참고.

박람회장 입구에서 경회지까지는 좌우로 각각 산업남관, 산업북관, 쌀관(米館), 사회경제관, 심세관(審勢館), 미술공예교육관 등 6개의 직영관이 배치되어 있다.[22] 박람회장 건축 책임자였던 총독부 건축과장 이와이(岩井長三郎)의 표현을 빌면 직영관의 건축 양식은 이른바 "조선식으로 통일"했으며, 건축 주체도 "다년간 조선에 거주한 청부업자에게 의뢰하고 주로 조선 내의 재료를 원료로 조영"했다.[23] 대표적으로 [그림 3] 산업남관과 산업북관을 보자. 이 점은 신축 전시관의 거개가 서구 건축 양식이었던 14년 전 공진회와는 분명 대비되는 것이었다.[24]

비단 외관에서 뿐 아니라 전시물에서도 조선적 풍경의 재현이 눈에 띈다. 예컨대 [그림 4] 쌀관에서 전라북도 수리조합이 출품한 전통 농악을 하는 인형인 풍년용(豊年踊)과 한옥의 조선 가정을 묘사한 사회경제관의 조선생명보험, 조선화재보험의 전시물이 그것이다. 물론 내부 전시물에서 재현된 조선적 풍경이 전달하는 바가 일본 지배 하에서 조선, 조선인은 풍요로와지고 있다는 메시지임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차치하더라도 외관의 이른바 조선식에도 미심쩍은 대목이 있다. 문외한의 눈에도 진짜 조선 전통의 한옥 양식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실 직영관 건축의 조선색을 적시한 선행 연구도 여기에서 조선식 건축 양식이란 서구식 창고형 건물에 지붕, 처마, 기둥, 벽체 등의 장식을 덧붙

22) 각 관의 전시물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산업남관 — 농산물・수산물・임산물 등, 산업북관 — 공산물・광산물, 쌀관 — 미곡 생산 성적, 사회경제관 — 사회사업・금융조합・산업조합・보험회사・無盡會社 등의 각종 통계・모형, 심세관 — 각 도별 소개, 미술공예교육관 — 미술・공예 작품・교육 관련 통계・모형 등.

23) 「朝鮮色の尊重材料も様式も請負者も, 岩井建築課長」, 『京城日報』, 1929.9.12.; 김제정(2013), p. 119.

24) 강상훈(2006), pp. 11-14; 공진회의 신축 전시관은 모두 10동이었는데 철도관과 연예관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 양식은 르네상스 양식이거나 르네상스 양식에 세제션(secession) 양식을 가미한 것이었다. 보통 '분리파'로 번역되는 세제션은 건축에서는 보다 기하학적 측면이 강조되고 자연적 형태가 반영되는 것이며 일본에 수입되어 박람회나 주택 건축에 많이 응용되었다고 한다.

인 것으로 비례나 형식은 전통 한옥과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25]

[그림 4] 쌀관의 풍년용과 사회경제관의 보험회사 전시물.
* 출전: 『사진첩』, p. 53, 59.

그러나 포인트는 직영관 양식이 얼마나 조선식을 진정성 있게 구현했느냐 하는데 있지 않다. 중요한 점은 일견 어설퍼 보일지라도 조선식이라는 점을 표나게 내세운 총독부의 '보여주기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조선 궁궐의 대표적 전통 건축인 광화문-근정전-경회루를 연결하는 동선에 놓인 6개관의 배치와도 관계가 있다. 이른바 조선풍의 6개관은 그냥 배치된 것이 아니라 "부근의 경회루, 근정전과 같은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조선의 색깔을 충분히 드러나도록"[26] 통일된 경관으로 보여지도록 기획되었던 것이다.

6개의 조선풍 직영관을 지나면 경회루가 나타난다. 경회루는 경복궁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이면서 조선박람회에서는 동선을 이끄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 앞에서 좌회전하여 경회지를 끼고 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선이다. 교통토목건축관에서 시작하여 사법경무위생관, 전기기계관, 참고관, 내지관(內地館)을 차례로 관람하게 된다. 이상의 전시관은

25) 강상훈(2006), p. 14; 직영관의 조선식이란 실은 일본 나고야성이나 히메지성을 본 딴 것, 오히려 '왜색'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민정(2003), p. 76.

26) 朝鮮博覽會事務局(1929), p. 13.

앞의 6개관과 달리 서구식 혹은 일본식 건축양식이다.[27] 그리고 전시물의 내용도 병합 전과 후를 비교하여 조선의 '발전상'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대조 수법은 공진회 이래 상투적인 컨셉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다채로운 전시 구성을 보이는 것이 내지관이다. 내지관은 본토에서 27개현 1개시가 출품한 공동 전시관이다.[28]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내지관의 구성을 보면 각 지역의 코너명이 무질서하게 보일 정도로 제각각인 가운데 일본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조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 따라 표기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두서 없을 정도이다. [그림 5]에서 대표적으로 세 곳만 예를 들면 와카야마현의 경우 한자의 조선어 발음과 글자를 병기했으며(화가산현, 和歌山縣) 시마네현은 일본어 발음을 조선어로 표기하고 한자를 병기하기도 했다(시마네겐, 島根縣). 그런가 하면 미야기현은 일본어 발음의 조선어 표기와 알파벳, 한자 등을 병기했다(미야기현, MIYAGIKEN, 宮城縣).

내지관에 출품한 본토 여러 지역의 코너는 거의 모두 이러하다. 그렇다면 "조선박람회 입장자의 대개는 조선인이다. 그런데 선전가니 선전광고이니 한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가 모두 일본어 위주로 한다"는 조선어 언론의 비판은 상투적인 '민족 내러티브'이나,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은 셈이다.[29] 기실 내지관의 출품 목적은 본토 각 지역의 특산물

27) "그 외의 건물(조선풍의 6개관 외)에 대해서는 건축 양식을 완전히 자유롭게 했다."; 朝鮮博覽會 事務局(1929), p. 13.

28) 출품 지역은 다음과 같다. 27개현은 사이타마현(埼玉縣), 군마현(群馬縣), 후쿠이현(福井縣), 도쿠시마현(德島縣), 돗토리현(鳥取縣), 야마가타현(山形縣), 에히메현(愛媛縣), 니가타현(新潟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시즈오카현(靜岡縣), 히로시마현(廣島縣), 이바라키현(茨城縣), 도치키현(栃木縣), 효고현(兵庫縣), 이시카와현(石川縣), 와카야마현(和歌山縣), 기후현(岐阜縣), 시마네현(島根縣), 가가와현(香川縣), 나라현(奈良縣), 미에현(三重縣), 미야기현(宮城縣), 야마구치현(山口縣), 아이치현(愛知縣), 오카야마현(岡山縣), 야마나시현(山梨縣), 고치현(高知縣) 등이며, 1개시는 이와테현(岩手縣)의 현도 모리오카시(盛岡市)이다.

29) 『東亞日報』, 1929.1.19.; 선행 연구도 이런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 전민정(2003), p. 84; 신주백(2004), p. 369.

등을 조선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조선인의 비율을 극히 낮았다. 따라서 조선인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매체는 좋건 싫건 '조선어'여야만 했다.[30] 그렇다면 선입견과는 달리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관된 원칙보다 조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림 5] 내지관 여러 코너들.

* 출전: 『사진첩』, p. 103, 105.
* 비고: 와카야마현(상좌), 시마네현(상우), 미야기현(하단).

30) 이 점은 총독부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선박람회 기간에 총독부가 간행한 간략한 조선 사정 설명 팜플렛을 보면 이른바 '내지어를 말하는 조선인'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의하면 1928년 기준 '보통 회화에 어려움이 없는 자'는 2.53%, '약간 아는 자'도 4.38%에 불과했다. 조금이라도 일본어를 아는 조선인 비율이 7%에도 못미쳤던 셈이다. 그리고 일본어로 간행한 이 팜플렛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일본 본토, 일본인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朝鮮總督府 (1929), 『數字ニ現ハレタル朝鮮』, p. 16.

여기까지가 조선박람회의 총독부 직영관이다. 줄곧 살폈듯이 직영관의 주된 컨셉은 조선색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풍의 전시관 건축으로 표출되기도 했으며, 외관이 조선풍이 아니더라도 내지관의 예처럼 조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의 사용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조선박람회의 조선색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여기에는 재조선 일본인 자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조선공업협회는 이미 1927년부터 박람회 개최를 건의했으며, 조선박람회 진행에 큰 몫을 한 경성협찬회의 주요 구성원은 재조선 일본인 자본가를 망라한 조선공업협회, 조선물산협회 멤버였다. 이에 반해 조선인 자본으로는 일본인 자본과 경쟁이 가능한 고무공업 정도가 박람회에 참여했다.[31] 언론인 유광렬의 간명한 언급처럼 "조선박람회이나 조선인의 박람회는 아니"었던 것이다.[32] 이는 식민통치 중기에 이르러 '조선의 지방화' '조선 속 지방의 주변화'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조선박람회의 조선색이란 제국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 조선의 로컬 컬러의 위상이었다는 의미이다.[33] 따라서 '지방으로서 조선'에는 '민족으로서 조선인'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위의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다른 각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최근 제기되었다.[34] 이 무렵 조선박람회 개최에 깊이 관여한 총독부 고위 관료군의 성격에 주목한 견해이다. 이들은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내무국장 이쿠타 세이사부로(生田淸三郞), 식산국장 이마무라 다케시(今村武志) 등으로 공통적으로 통감부 시기 도한하여 줄곧 총독부에서 관료로 성장하여 1920년대 후반 최고위 수뇌부에 이른

31) 경성협찬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리는 김나라(2016) 참고.

32) 柳光烈, 「무슨 評을 하오리까」, 『新民』 1929.11.

33) 신지영(2013), 「과학이라는 인종주의와 복수의 지방화」, 『한국어문학연구』 6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p. 338.

34) 김제정(2013) 참고.

자들이었다. 이들은 3.1운동 이후 총독 사이토(齋藤實)가 부임하면서 새롭게 조선으로 전임한 고위 관료군과 비교하여 세칭 '토박이 관료'로 일컬어지기도 했다.[35] 그리하여 이들은 제국 일본의 '식민지 관료'이면서 동시에 '조선 관료'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부류가 주도한 박람회에서 조선색이란 단순히 제국 일본의 지방색으로서 그것과는 결이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36]

두 가지 견해는 어느 한 쪽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공존한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분명 식민지이면서 단지 제국 일본의 위계화된 지방인 것만은 아니었던 조선, 그리하여 제국의 지방도시이면서 식민지 조선의 수도이기도 했던 박람회 개최장소 경성의 복합적이고도 유동적인 위상과도 관련된 것이었다.

3. 보편적 근대와 로컬 컬러의 공존, 특설관 양식의 다면성

박람회장의 동선을 따라 총독부 직영관을 대략 다 관람하고 나면 이제 조선 내 각 도, 일본 본토 여러 지역의 특설관, 그리고 여러 기관・단체에서 설치한 다양한 특설관으로 이어진다. 특설관은 설치 주체가 다양하니만큼 외관도 다양하다. 대체로 각자의 독특한 지역색을 드러낸 것, 지역색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모던풍', 딱히 해당 지역의 지역색이라기보다 다소 막연한 '이국풍'의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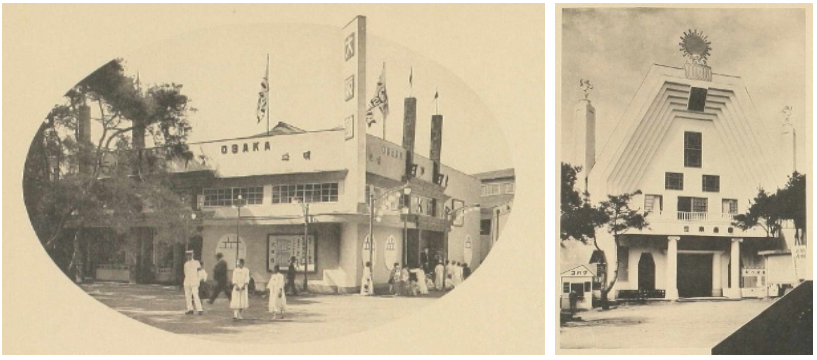
먼저 지적할 것은 모던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색을 확연하게 드러낸 특설관보다 많다는 점이다.[37] 이는 총독부 직영관에서 드러나는

35) 당시에도 양쪽을 대비시켜 각각 '朝鮮二十年組'(조선에 20년 있었다는 의미) '大正八年組'(다이쇼8년, 1919년에 조선으로 전입했다는 의미)라고 부르기도 했다.

36) 총독부 직영관 건축을 주도한 건축과장 이와이도 1910년 5월 통감부 기사로 처음 도한한 전형적인 '토박이 관료'이다.

조선박람회의 공식적 컨셉으로서 조선색 드러내기와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는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특설관에서 모던풍의 외관을 택했다고 했다.[38] 특설관은 해당 지역 행정기구와 협찬회에서 준비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역세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즉 지역세가 강한 경우 굳이 로컬 컬러를 드러내지 않는 '보편적 근대'를 보여주는 경향이었던 셈이다.

모던풍의 특설관은 조선에서는 경남관, 경북관, 전남관, 평북관, 황해관, 조선농회관, 조선수산회관, 조선축산회관 등이며 본토에서는 나고야관, 도쿄관, 홋카이도관, 오사카관, 사할린관, 미츠비시관, 미츠이관, 쓰미토모관 등이다. 역시 조선 내 각 도보다는 조선농회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관변단체, 그리고 본토의 대도시, 대기업이 주류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그림 6] 오사카관과 경남관의 경우를 보자.



[그림 6] 전형적인 모던풍의 특설관 오사카관과 경남관.

* 출전: 『사진첩』, p. 135, 153.

37) 필자의 판단이므로 달리 볼 여지도 있음을 전제한다.

38) 강상훈(2006), p. 16; 강상훈은 반대로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은 로컬 컬러를 드러내는 전략을 취했다고 보았다. 이는 일면 타당한 지적이지만 다소 일면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그런데 모던풍 특설관 중에서도 전남관의 경우는 상당히 독특하다. 전라남도는 여러 도 중 특설관 운영에 가장 열심이었다. 매일신보 기자 출신 홍승구가 쓴 『조선박람회편람』은 특설관의 소개가 상세한데 여기에서는 전남관에 대해 "규모의 광대함과 설비의 완전함은 실로 각 도 특설관 중 제일"이라고 했다.[39] 설계와 건축도 여러 도 중 가장 일찍 시작했을 뿐 아니라 시설 운영도 남달랐다. 예컨대 부속 식당도 전남 특산물을 재료로 일식 "정물(丼物; 일본식 덮밥, 돈부리) 3종, 스시 4,5종"을 준비하는 등 공을 들였다. 식당 메뉴 준비에서도 '조선적 로컬'과 '일본(제국)적 보편'의 결합이라는 의의를 살리려 애썼음을 알 수 있다.

특설관의 양식도 "조선에 잇서서는 처음"이라는 "라이트식(세계 최신 방식)"을 채택했음을 강조했다.[40] '라이트식'이란 미국 출신 20세기 건축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건축양식을 뜻한다.[41] 더불어 조선 측 특설관 중 유일하게 'ZENRANAMDO'라는 지역명 영어 포기를 메인으로 내세웠다.[42] 여러 점에서 단지 모던풍의 외관을 넘어 전남관의 일본-서구-보편 지향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

39) 洪承耆(1929),『朝鮮博覽會便覽』, p. 31; 홍승구(1889-1961)는 대한제국, 총독부 하급관료를 거쳐 1920-26년 매일신보 경제과장, 논설부장 등을 역임했다. 퇴사후에도 활발한 친일 문필활동을 했다.

40) 「異彩を放つ特設館」, 『京城日報』, 1929.5.16.; 『每日申報』, 1929.5.18., 6.11., 6.16.

41) 라이트(1867-1959)는 도쿄 제국호텔(1923) 등을 설계하여 당시 일본과 조선에 잘 알려져 있는 건축가였다.; 서수경(2004),『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자연을 품은 디자이너』, 서울: 살림 참고.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전남관에 보이는 라이트적인 요소는 가로의 장식적 패턴 등이다. 전남관에 보이는 라이트적인 요소에 대해 교시해주신 이연경 선생님(인천대 연구교수)께 깊이 감사드린다.

42) 조선박람회와 대조적으로 "근대적인 모티브로 충만한" 1935년 타이완박람회에서 도쿄, 오사카관의 간판은 '東京Tokyo', '大阪Osaka'였다.; 하세봉(2004), p. 121. 이것이 조선박람회에서는 도쿄관 뿐 아니라 전남관에도 나타난 셈이다.

[그림 7] 조선박람회 전남관.

* 출전: 『사진첩』, p. 133.

한편 도쿄관과 나고야관은 본토 굴지의 대도시에 어울리는 외관을 보이면서도 한자, 조선어를 병기하는 등 직영 내지관에서도 보이는 조선을 향한 발신이 보인다. 덧붙여 본토 특설관 중 내부 사진이 있는 것은 도쿄관 뿐이다. 유일하게 내부의 모습을 남긴 점도 그렇거니와 한자, 조선어 병기에 영어 회사명까지 겹쳐진 도쿄관의 외관과 내부는 조선-일본-서구의 허브(hub)로서 '제국의 수도' 도쿄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그림 8] 조선박람회 도쿄관과 나고야관.

* 비고: 도쿄관(상좌), 나고야관(상우), 도쿄관 내부(하단).

* 출전: 『사진첩』, p. 155, 165.

다음 지역색을 두드러지게 내세운 특설관은 조선에서는 충남관, 평남관 뿐이며 본토에서는 교토관, 나라(奈良)관, 미에(三重)관, 시가(滋賀)관 등이다. 더불어 식민지 타이완관, 그리고 만몽(滿蒙)관이 여기에 속한다. 타이완관이나 만몽관은 기실 지역색이라기보다 이국적 풍경, 관람객을 모으기 위한 이색적 볼거리의 측면이 강했다.[43] 『조선박람회편람』은 타이완관과 만몽관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 대만총독부에서 대만의 특산물 및 기타 제도, 문물 등을 일반에 소개하기 위하야 특설한 것인데 건축양식이 순대만식으로 된 것과 관 중앙에 파초(芭蕉), 목과(木瓜)와 벽 주위에 조각한 생번(生蕃)의 무도화(舞蹈畵)는 대만의 정서 그대로 표현하며 조선에 업는 장뇌(樟腦), 다(茶) 등 특산품을 염가로 즉매하는데 만몽, 화태 양관과 공히 장내의 인기를 독점하는 감이 잇더라.
>
> 관동청에서 남만주철도회사와 합력하야 10만여원으로 만주, 몽고 방면의 특산물, 문화 풍속 등을 일당(一堂)에 나집(羅集)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진기 이상치 안음이 업서 장내에 일이채(一異彩)를 방(放)하며 특히 몽고 낙타상대(駱駝商隊)를 꿈이어 장내를 순회하는 광경은 몽고 그대로의 정서를 늣기게 하더라.[44]

조선의 충남관과 평남관은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恩津彌勒)과 평양성 현무문(玄武門)을 채택했다. 충남관의 은진미륵은 고려 광종대 만들어진 현전하는 가장 대형 석불이다.[45] 식민

43) 「南國情緒豊かな朝博の臺灣館」, 『京城日報』, 1929.8.2.

44) 洪承耉(1929), pp. 26-27; 선행 연구가 지적했듯이 공식적으로 제국 일본의 영역이 아닌 만몽관의 설치는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리고 이런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만몽관을 설치한 것은 "일본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대륙 침략의 야망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었다.; 신주백(2004), p. 367. 필자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은연중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엑조틱한 풍경의 연출이 사용되었음을 덧붙혀 두고자 한다.

지시기 들어 호남선이 개통하여 논산역이 설치되면서 관촉사는 일약 관광지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이른바 “동양 최대의 석불”로 알려진 은진미륵은 핵심 관광 아이템이 되었다. 그리하여 1913년 이미 논산미륵보승회라는 단체가 조직되기도 했으며 각종 언론 매체에서 논산, 나아가 충남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상징물이기도 했다.[46]

[그림 9] 조선박람회 충남관과 1920년대 관촉사의 관광객.

* 출전: 좌: 『사진첩』, p. 131, 우: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24.10.; 신은영(2016), p. 113.

45) 공식 명칭은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으로서 높이 18.12m의 석불이다. 광복후 1963년 보물 제218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 4월 다시 국보 제323호로 승격되었다.

46) 신은영(2016), 「향유와 보호의 역설 — ‘은진미륵’의 근현대 역사 경험」, 『미술사논단』 42, 한국미술연구소 참고.

그 밖에도 충청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박람회를 기회로 지역 명소를 소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화가 다케이시 츠요시미(武石壯美)[47]에게 의뢰하여 이른바 '부여팔경'을 산수화로 제작하여 "조박 관람객으로 하야금 부여에 가지 아니하고도 부여팔경을 볼 수 있게" 한 것 등이 그것이다.[48] 그런데 고란사, 낙화암, 백마강 등 백제 사비시대의 유적을 중심으로 한 부여팔경은 막상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진 것이 아니다. 기원은 불투명하며 오히려 식민지시기 미디어에서 진행한 팔경 선정 이벤트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49] 이런 점들은 조선박람회에 임하는 충청남도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평안남도는 각 도 중 특설관 설치 준비를 가장 일찍 시작하여 이미 1929년 초부터 "조박 입장자로서 전부 평남을 이해식히고 또 그 한편으로는 일보를 진하야 친히 평남 시찰의 호기심을 통케 하야 관람자 일동을 평남에까지 유치하랴는 계획"을 세워 "특설관의 제반시설은 각 도 및 내지 각현 합계 약 50의 특설관 중 가장 관람자의 눈을 끄을도록 만들랴고" "비책을 강구"했다.[50] 그리하여 그 '비책'의 하나가 바로 특설관을 평양성 현무문 모양으로 "일대 이채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던 셈이다.[51]

현무문은 평양성의 외곽 겹성인 북성의 북문으로서 고구려 시기의 기법을 잘 보여주는 평양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이다. 더불어 청일전쟁의 성

47) 다케이시의 구체적인 이력은 알기 어렵다. 다만 메이지 초기 국내파 서양화단의 중심인물인 고야마 쇼타로(小山正太郎, 1857-1916)의 문하로서 1921년 10월 재조선 일본인 유력자들의 후원으로 경성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사실이 있다(『京城日報』, 1921.10.13.). 활동 기반의 상당한 부분을 조선 쪽에 두고 있었던 작가가 아닌가 여겨진다.

48) 『每日申報』, 1929.9.5.

49) 충청남도에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의 팔경 선정 이벤트에 대해서는 김해경・안경진(2015), 「일제강점기 반도팔경 선정과정을 통해 본 경관 인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2, 한국전통조경학회 참고.

50) 『每日申報』, 1929.1.24.

51) 「特設館に玄武門を出品す」, 『京城日報』, 1929.5.9.

패를 가른 평양성 전투의 주요 무대이기도 하다.[52] "제일 강산의 칭이 잇는 평양의 승적(勝蹟) 소개에 전력을 경주하야 관광을 권유"하는 평남관의 취지에 잘맞는 컨셉이었던 것이다.[53] 뿐 만 아니라 평안남도는 박람회 기간 중 평양부에서 부대 행사로 평양사적명승전람회와 전국토산품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54]

[그림 10] 조선박람회 평남관과 평안남도의 부대 행사 선전물.

* 출전: 좌: 『사진첩』, p. 137, 우: 山路勝彦(2008), 권두도판.

본토 특설관 중 '천년 고도' 교토관이나 일본 고대 국가의 발상지격인 나라관은 지역을 역사적 장소로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치하더라도 시가관이나 미에관은 어떠한가? 두 관은 공통적으로 평이한 건물 스타일에 지역의 대표적 유적인 미이테라(三井寺)의 범종과 이세반도의 여부암(女夫岩)을 장식 요소로 했다. 시가현 오쓰시(大津市)에 위치한 미이테라는 7세기 후반 건립된 임제종의 본찰로 그 범종은 신라의 장인 김경문(金慶門)이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했다. 조선에서 개최한 박람회에서 시가현의 상징으로 적절한 아이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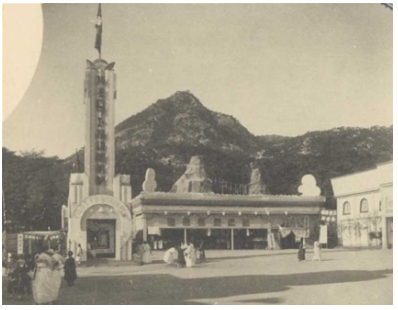
52) 김경리(2016), 「전쟁의 학습과 대중성 획득의 방법론 — 청일전쟁소고로쿠(絵双六)와 환등회(幻燈會)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07, 한국일본학회 참고.

53) 洪承耉(1929), p. 32.

54) 「平安南道, 史績名勝展, 二十日から開場」, 『京城日報』, 1929.9.21.

[그림 11] 조선박람회 시가관.
* 출전: 『사진첩』, p. 169.

한편 여부암은 일본 고대 사서 『고사기(古事記)』에 등장하는 창세신 부부 이자나기(伊耶那岐)와 이자나미(伊耶那美)를 상징하는 바위로서 일본사적으로 의의가 남다르다. 따라서 당시 조선의 학생 수학여행 코스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미에현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이다.[55] 지역세가 특별히 강하지 않고 당시 조선에 크게 알려져 있지도 않았던 두 지역은 공통된 전략을 채택한 셈이며, 이는 '조선의 지방'인 충남, 평남과도 일맥상통한 것이었다.



[그림 12] 조선박람회 미에관과 1920년대 조선의 미에현 수학여행.
* 출전: 좌: 『사진첩』, p. 169, 우: 1926년 5월 광주사범학교 일본 수학여행 기념사진(2018.1.4. 나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필자 촬영).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스타일에 명확하게 속하지 않는 특설관을 살펴보자. 이 계통은 하나로 묶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데 분명한 근대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유의 지역색이 드러나지도 않는 상투적이면

55) 『조선박람회사진첩』은 '여부암'으로 쓰고 있으나 현재는 보통 夫婦岩으로 쓴다.

서도 혼종적인 모양을 뜻한다. 이런 계통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조선에서는 경기관, 전북관, 함남관, 함북관, 강원관, 충북관 등이며, 본토에서는 나가사키관, 규슈관, 히로시마관 등이다.

물론 전시관 스타일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특설관을 준비하는 지역의 열의가 꼭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역세에 따라 편차가 컸다. 이를테면 '수도' 경성을 포함한 경기관의 경우 전시관의 스타일은 국적 불명의 막연한 이국풍이었지만, 공사도 가장 빨리 진척되었고[56] 규모도 다른 도에 비해 압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미츠코시(三越), 조지야(丁子屋) 등 백화점, 대상점이 다수 출품하는 등 양과 질에서 다른 도를 압도했다.[57]

또 함남관의 경우 규모도 경기, 전남 다음이며 정면 입구에 "조선수전(朝鮮水電) 및 조선질소(朝鮮窒素) 두 회사 합동 파노라마 모형"을 세우는 등 공을 들였다.[58] [그림 13]에서 보듯이 어떤 점에서는 맥락 없는 그리스・로마풍의 전시관 양식이야말로 나름대로는 지역세를 과시하려는 욕망의 발현이라고 여겨진다. 본토 특설관 중에서는 나가사키관이 눈에 띈다. 나가사키는 총독부 직영 내지관, 규슈특설관에 출품한데 더하여 별도 특설관을 추가 설치했다.[59] 역시 '장기상점'이라는 한글 표기 등에서도 조선 측에 강하게 어필하려는 자세가 보인다.

---

56) 「特設館工事進む」, 『京城日報』, 1929.8.3.

57) 홍승구는 경기관은 단연 판매 물품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地方人士의 선물 購買에 가장 殷盛을 볼 것"이라고 했다.; 洪承耉(1929), p. 30. 참고적으로 각 도 특설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경기관 350평, 충북관 30평, 충남관 50평, 전북관 122평, 전남관 200평, 경북관 104평, 경남관 115평, 황해도관 50평, 평남관 124평, 평북관 75평, 강원관 45평, 함남관 170평, 함북관 70평; 朝鮮博覽會事務局(1929), pp. 5-6.

58) 洪承耉(1929), p. 31.

59) 洪承耉(1929), p. 28.

[그림 13] 조선박람회 경기관, 함남관, 나가사키관.

* 비고: 경기관(상좌), 함남관(상우), 나가사키관(하단).

4. 맺음말

조선박람회는 성공한 박람회였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공황의 터널로 들어가는 시점(1929년)인 데다가 개최 시기도 농번기(9-10월)와 겹쳐 공진회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 관람객의 상당한 반강제적 동원이 있었지만 수지・타산의 측면에서는 실패한 박람회였다. 박람회 폐회에 맞춰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조선박람회는 "항상 시세와 민도로써 상투어를 삼는 당국이 축년(逐年)의 천재(天災)로 궁핍에 궁핍을 가한 조선인의 경제상태를 불고하고 단행"한 것인데 "일시의 번영을 꿈꾸든 종로 상가에 몰락"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60] 심지어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도 자금력이 부족한 조선인 상점이 박람회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을 받아 무리한 확장을 한 끝에 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파산자 속출이 우려됨을 경고했다.[61]

그러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식민통치 중기의 시점, 조선박람회라는 대형 이벤트에 내재된 코드를 읽는 작업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무리하게 추진하여 실패한 박람회라는 점이 이 작업을 누락할 빌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실 식민통치는 '언제나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작업을 주로 박람회 전시관의 외관을 읽는 것을 통해 시도해 보았다.

본론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조선박람회의 전시관은 총독부 직영관과 각 지역・단체의 특설관의 두 계통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총독부가 설치한 직영관은 일관되게 '조선색'의 컨셉을 취했다. 여기에는 1929년 조선박람회가 제국 일본의 '일부이면서 일부가 아닌' 조선이라는 독자적 권역, 그리고 그 중심인 식민지 '수도' 경성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라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그런가 하면 특설관은 다양한 외관을 보인다. 근대적이며 무국적적인가 하면 소지역의 지역색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은 서구 제국의 만국박람회에 출품할 때는 일본의 전통을 강조하며 비근대의 나라로 스스로를 위장하는 반면 본토와 식민지 박람회에서는 근대 국가로 행세하는 이중적 자기를 익혀나갔다고 한다.[62] 이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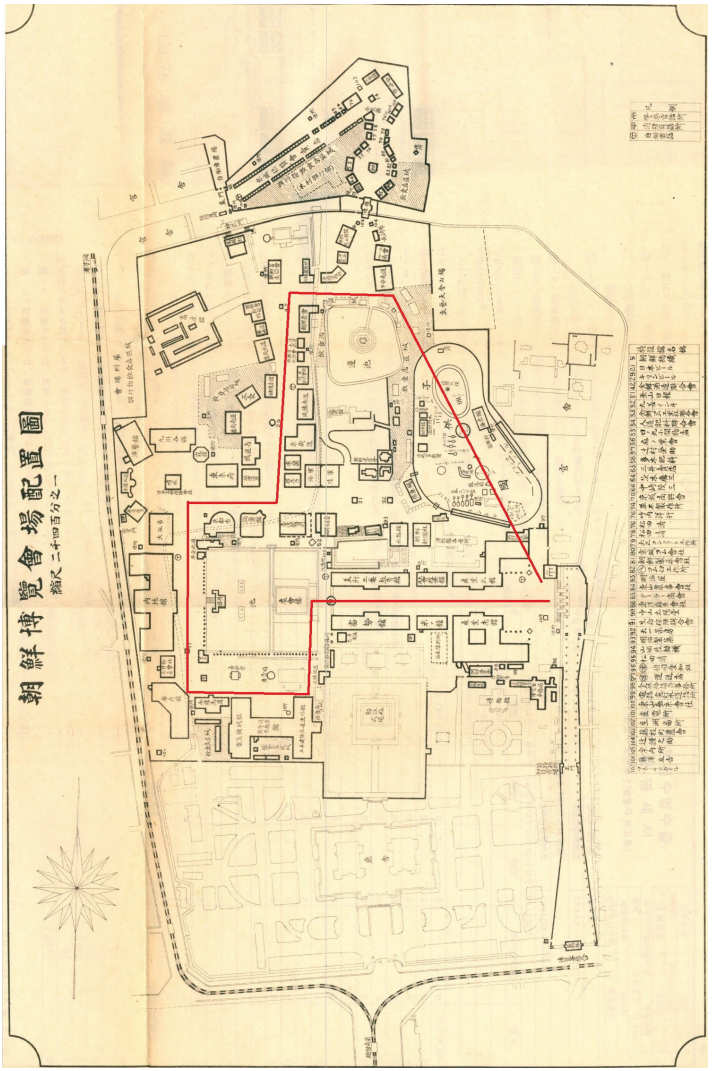
60) 「社說: 朝博의 影響」, 『東亞日報』, 1929.11.1.; 소설가 염상섭이 1930년 『朝鮮日報』에 연재한 장편 『狂奔』에서 "석 달 동안에 시골서 적어도 이백만 명은 들끓어 올 터라고 하지만 이런 한참 농사 때에 박람회 구경하러 올 놈이 누구겠습니까?" "구월까지는 아무리 돼지떼 몰듯이 목을 매어 끌어올리려 해도 안 될 노릇이니 부지중에 죽을 놈은 우리 같은 여관업자뿐일게 올시다."라고 한 것도 정확하게 같은 상황의 묘사이다.; 김나라(2016), p. 51.

61) 「ますます深刻化した朝鮮人商店の苦境」, 『京城日報』, 1929.10.24.

62) 요시미 순야(2004), p. 292.

해를 받아보자면 조선박람회에서 본토의 여러 지역이 자기를 드러낸 방식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인 조선을 향해 '근대 국가로 행세'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비근대의 나라로 스스로를 위장'하는 지역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조선의 여러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근대화되었음을 강렬하게 어필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독특한 전통의 로컬 컬러를 내세우는 지역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박람회에서 보이는 여러 코드는 식민통치 중기의 시점, 제국 일본 권역에서 식민지 조선의 다면적인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제국 도시의 위계 속에서 식민지 '수도' 경성의 지위 역시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도 1] 조선박람회장배치도.

* 출전: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1929),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報告書』.

* 비고: '박람회장 입구–총독부 직영관–경회지(경회루)–총독부 직영관–조선 및 본토 특설관–각종 유흥시설–어린이 나라–박람회장 입구'의 동선.

참고문헌

【자 료】

『每日申報』, 『京城日報』, 『東亞日報』.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1929),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報告書』.

極東時報社・大陸通信社(1929), 『朝鮮博覽會紀念寫眞帖』.

朝鮮總督府(1930), 『朝鮮博覽會紀念寫眞帖』; 건국대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역(2018) 『1929년, 조선을 박람하다 1, 조선박람회기념사진첩』, 서울: 소명출판.

朝鮮博覽會 事務局(1929), 『朝鮮博覽會大要』.

朝鮮總督府(1929), 『數字ニ現ハレタル朝鮮』.

洪承耆(1929), 『朝鮮博覽會便覽』.

【논 저】

서수경(2004),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자연을 품은 디자이너』, 서울: 살림.

요시미 순야(2004), 이태문 역, 『박람회』, 서울: 논형; 吉見俊哉(1992), 『博覽會の政治學』, 東京: 講談社.

山路勝彦(2008), 『近代日本と植民地博覽會』, 東京: 風響社.

Todd A. Henry (2014), *Assimilating Seou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강상훈(2006), 「일제강점기 박람회 건축을 통해 본 건축양식의 상징성」, 『건축역사연구』 47, 한국건축역사학회.

김경리(2016), 「전쟁의 학습과 대중성 획득의 방법론 — 청일전쟁소고로쿠(絵双六)와 환등회(幻燈會)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07, 한국일본학회.

김나라(2016), 「1929년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김영희(2007), 「조선박람회와 식민지 근대」, 『동방학지』 140, 연세대 국학연구원.

김제정(2013), 「식민지기 박람회 연구 시각과 지역성」, 『도시연구』 9, 도시사학회.

김태웅(2002), 「1915년 경성부 물산공진회와 일제의 정치선전」, 『서울학연구』 18,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김해경・안경진(2015), 「일제강점기 반도팔경 선정과정을 통해 본 경관 인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 한국전통조경학회.

남기웅(2008),「1929년 조선박람회와 '식민지근대성'」,『한국학논집』43,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송인호・김제정・최아신(2014),『일제강점기 박람회의 개최와 경복궁의 위상 변동 —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서울학연구』55,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신은영(2016),「향유와 보호의 역설 — '은진미륵'의 근현대 역사 경험」,『미술사논단』42, 한국미술연구소.
신주백(2004),「박람회 — 과시・선전・계몽・소비의 체험공간」,『역사비평』67, 역사비평사.
신지영(2013),「과학이라는 인종주의와 복수의 지방화」,『한국어문학연구』61, 동악어문학회.
안현정(2010),「시선의 근대적 재편, 일제치하의 전시공간」,『한국문화연구』1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장나영(2018),「식민지 조선의 가족 나들이 연구 — 1929년 조선박람회의 '어린이 나라'를 중심으로」건국대 석사학위논문.
전민정(2003),「일제시기 조선박람회(1929년) 연구」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전윤환(2009),「1929년 조선박람회를 통한 지방민의 근대 공간 체험」상명대 석사학위논문.
주윤정(2003),「조선물산공진회(1915)에 대한 연구」정문연 석사학위논문.
토드A. 헨리(2008),「제국을 기념하고, 전쟁을 독려하기」,『아세아연구』51-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하세봉(2004),「식민지권력의 두 가지 얼굴 — 조선박람회(1929년)와 대만박람회(1935년)의 비교」,『역사와 경계』51, 부산경남사학회.
_____(2001),「20세기 전환기, 박람회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인식과 시선」,『동아시아 문화와 사상』6, 동아시아문화포럼.
하지연(2008),「韓末・日帝강점기 菊池謙讓의 문화적 식민활동과 한국관」,『동북아역사논총』21, 동북아역사재단.

원고 접수일: 2018년 10월 1일
심사 완료일: 2018년 10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0월 30일

ABSTRACT

The Juxtaposition of "Empire and Colony" and "the Capital and the Provinces" in the Styles of the Exhibition Halls of the Joseon Exposition in 1929

Yum, Bok-Kyu*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e styles of exhibit halls at the Joseon Exposition in 1929 by the codes of "empire vs colony" and "the capital vs the provinces." The Joseon Exhibition, held in the middle of colonial period, was characterized by adopting a "Joseon color," which, in effect, reflected localized colonial governance. The Joseon color stood out especially with traditional Korean features of architecture that adorned the Government-General's own exhibit hall. Also, the exhibits were displayed along with easily understandable explanations to colonists. On the other hand, special halls of varied local groups or other organizations were built in largely three styles: universal and modern, of strong local color, and of exoticism with no specific origin. In most cases, local communities with abundance in produces and character preferred modernity, while those with less prosperity stressed local color in styles of their exhibition halls. The rest adopted more unidentifiable exotic styles.

* A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University of Seoul

These juxtapositions of conflicted codes shown at the Joseon Expo reflected the multifaceted status of colonial Joseon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Japan Empire as well as the unstable status of the colonial capital Gyeongseong in the hierarchy of Japanese imperial cities.